

# 농특산물 마케팅 효과 '톡톡'

# 진안고원시장 경쟁력 강화 탄력

##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

진안군은 16일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진안고원시장이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적으로 115개 시장이 공모하여 38개소가 최종 선정됐으며 전북도에서는 진안과 무주가 선정됐다.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장점을 집중 육성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공모사업은 향후 2년간 사업비 10억 원(국비 4억, 도비 1억, 군비 5억)을 투입해 미안사 등 관내 문화·관광·역사 콘텐츠와 지역특색을 가미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고, 전통시장의 대표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을 지원하게 된다.

진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에 문화·관광 특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진안고원시장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안고원시장 상인회(회장 김정오)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업 종료 후에도 사후관리 및 성과 유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진안고원시장이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 상인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진안고원시장이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대형 전광판 홍보·농특산물 할인 프로모션·유튜브 홍보 등 앞장

장수군의 농특산물 마케팅이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장수군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장수군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심지 전광판 홍보, 할인쿠폰 프로모션, 유튜브 동영상 홍보, 수출상품 지원 등 농특산물 마케팅에 앞장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첫 번째 엄지척, 서울, 전주 등 도심지 중심 대형 전광판 홍보

군은 고품질 장수 사과와 한우를 도심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센트럴시티 터미널 게이트(13개) 및 전주 기린사거리 대형 전광판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장수 한우와 사과를 홍보하고 있다. 서울센트럴시티 터미널은 1일 방문자가 15만명 이상이며, 인근 신세계 강남점,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등이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 환금 상권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이에 장수군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타 지역인들에게 장수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최적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엄지척, 추석 한가위 맞이 농특산물 온라인 할인(20%) 프로모션 진행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수 농특산물로 추석 상차림 및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를 위해 장수군은 8월부터 장수물(www.장수물.com), 우체국 쇼핑몰(mallepost.go.kr) 등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장수군 농특산물 및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3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매출은 전월 대비 40% 이상 상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추석이 다가오면서 매출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엄지척, 유튜브 홍보 채널

파급력 강화에 따른 유튜브 실시간 홍보

인기 인플루언서 유튜브 그까이꺼(장이장 장광순) 및 별다방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장수 사과, 한우, 오미자 등 농특산물 실시간 홍보 동영상 서비스 하고 있다. 특히 그까이꺼 동영상은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당시 조회수 10만명을 기록하며 방송 중 사과 구매 문의가 폭주하기도 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장수군은 평균 해발 400~600m의 준고랭지지역, 큰 일교차, 청정한 자연환경 등 최적의 자연환경에서 사과, 한우, 오미자 등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 좋은 재료에 멋진 마케팅이라는 옷을 입혀 사(4)고 싶은 장수 농특산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사과 판매전' 1억2000만원 매출 달성

## 우체국쇼핑몰서 5200상자 판매 달성

장수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실시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와 함께하는 장수사과 판매전에서 총 1억 2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군은 9월 8일부터 15일까지 우체국쇼핑몰 내 '쇼핑 25시', '슈퍼위클리' 등 프로모션 이벤트에서 장수사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했다.

관내 통합마케팅 조직인 장수군조합 공동사업법인, 장수농협, 장계농협, 장수사과원협과 신농협농조합법인 총 5개 주요 유통주체가 모여 명절이후 판매가 어려운 20~24파로 공급품목을 한정해 판매하기로 결정했고,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위원회와 협력해 상품별 최대 20% 할인쿠폰도 발행해 소비자를 공략했다. 그 결과 추석명절



장수사과 판매전 우체국쇼핑몰.

국의 소비자에게 알린 계기가 됐으며 '장수사과 최고'라는 약 300여개의 상품평으로 13일~15일 사이 우체국 쇼핑몰 BEST에 지리 잡기도 했다.

장수군이 보증하고 관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참여조직, 신농협조합법인의 체계적인 선별 및 공급기반을 통해 12시 이전 당일 발송 체계를 원칙으로 해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장수사과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극대화 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판매전을 30일까지 진행하고, 추가로 제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기간인 10월 28일에서 31일까지 축제 기간에도 장수군 농특산물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TV광고 및 라이브커머스 판매 방안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추석 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구축

진안군은 1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명절 대비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 고향 방문, 여행 등 유행 인구 증가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사전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추석 명절 방역대책 비상체제를 운영 추진한다.

현재 상시 운영 중인 재난종합상황실을 연휴기간에도 운영 체제를 강화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발생상황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 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방역책임의식 강화와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빈틈없는 자가 격리자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체육시설, 사업장(외국인 기숙사 및 집단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역 지도점검과 타 지역방문, 여행자제 권고, 방역수칙 당부 등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적발될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부과, 구상권 청구, 수사기관 고발 등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무주군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의 여행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무주군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해 생활방역수칙을 지도하고 관광지 방역과 환경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방역·수용태세를 개선하는 것으로, 12월까지 무주덕유산리조트와 태권도원, 무주향교, 반디랜드, 머투와인동굴 등 주요 관광지 5곳에 총 17명의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한다. 현재 11명의 방역관리 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9월 중으로 6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이현재 군 관광진흥과장은 "세계적인 으름 관광지를 지향하는 관광군이 만큼 '위드 코로나19'를 위한 정책발굴과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사업은 그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기반이 되고 무주군이 안전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총 150여억 원을 관광분야에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언택트(Untact)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6개 읍면 특성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으름관광 실현을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협의체 실무회의 가져

진안군은 16일 산악초타운에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하 산림치유원) 조성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성협의체 회의는 2018년부터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되며 산림청, 전북도, 진안군 등 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은 현재 진행되는 산림치유원의 실시계획 후 각 기관별 소관 인허가 사항에 대한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으며, 전북도는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사업 추진 시 각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진안군은 주민조직화, 산골음식 상품

화 등 자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주민조직화 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주민들이 처음으로 직접 참여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회의는 추진현황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조성과 향후 연계발전 방안을 위한 민관 협력을 유지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치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 통

### 무주군,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대

무주군은 지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조난 신고가 들어왔던 지역 12곳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신규로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판'은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재해 등의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되는 안내 번호판으로 전국을 가로, 세로 10m씩 격자형으로 구획을 정리해 각 구획에 한글 2자리, 숫자 8자리로 구성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이나 해양 지역에 설치하기 때문에 실측이나 조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매우 유용하다.

김경복 민원봉사과장은 "무주군은 현재 덕유산 국립공원 일원 등지에 국가지점번호판이 모두 532개가 설치돼 있다"며

"국가지점번호를 알려주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악지대가 많은 무주군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지점번호판을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추석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진안군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응급의료체계 관리와 응급환자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추석 명절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추석 비상진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진안군의료원과 관내의료기관 9개소, 휴일 지킴이 약국 9개소, 보건지소 3개소를 일자별·시간대별로 지정·운영되며 그 밖에 편의점 등 3개소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도 해열제 등 안전상비용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진안군의료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하며 추석 연휴기간 중 운영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는 진안군청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진안군보건소(430-8560)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이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